

보도자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2. 7.(월)13:30 (지 면) 2022. 2. 7.(월)13:30	배포 일시 2022. 2. 7.(월) 08:30		
담당 부서 <총괄>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이지현 (044-203-6729) 사무관 김수진 (044-203-6471)
<h2 style="margin: 0;">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h2>			

주요 내용

-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
 - 개학 전후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2.14.~3.11.) 운영
 -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 마련
 -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 도입
 - 비상상황 대비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 (학교방역체계) 방역인력 7만 명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조사 및 진단 체계 구축, 신속항원검사키트 학생·교직원의 20% 확보(유·초는 10% 추가), 현장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 도입(교육부 특별교부금 최대 500억 원 지원)
 - (유초중등 및 특수) 4개 학사운영유형 및 학교단위 유형전환 기준 제시로 지역·학교현장 중심 신속대응 체계 강화
 - (대학)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수업 운영원칙 유지 및 비상 상황 시 일시적 비대면 전환 등 탄력적 학사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2월 7일(월)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추진 배경 및 상황 진단 】

-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비중) : 12월 5주 14.6명(25.1%) → 1월 4주 40.0명(26.9%)
 10만 명당 20대 확진자(비중) : 12월 5주 7.7명(11.0%) → 1월 4주 39.2명(22.0%)
 - 다만,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 】

-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 대응체계 전환 내용 >

구 분		현 행	변 경
학교 방역	진단 체계	방역당국 조사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 검사 및 관리 ▶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 기숙사생, 체육특기생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 현장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 도입(찾아가는 검체팀 활용)
	기준 마련	중앙단위	학교단위
학사 운영	기준 적용	학교 내 일괄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규모, 학교급, 학년, 학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 지역·학교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 * 유·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운영	교육부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

1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강화

□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한다.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한다.

* 재해특별교부금 342억 포함 총 2,241억 원

-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 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 신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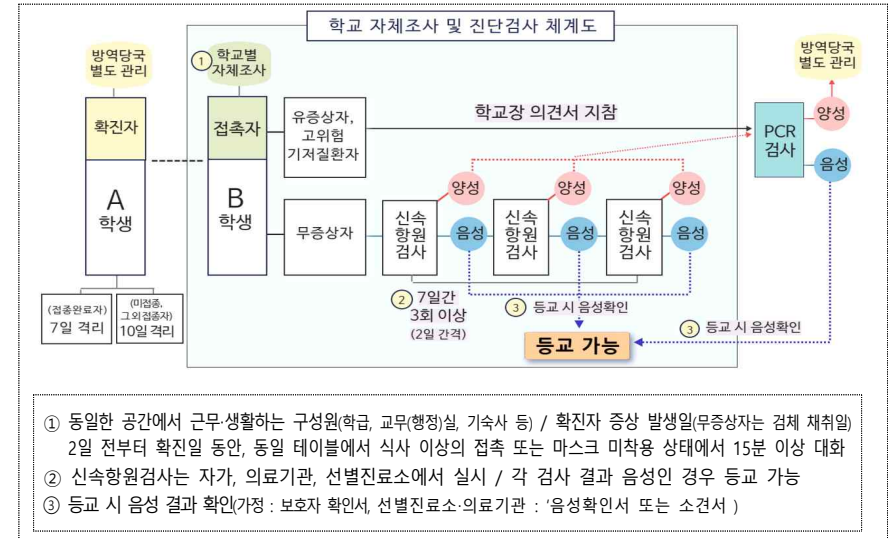
-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

* 시설별 역학조사 및 고위험군 중심의 피시알(PCR) 검사 진행 등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된다.

-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여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 필요수량 : 약 650만개/월, 교육청 자체예산 활용

※ 필요수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TF' 운영(2022.1월~) → 필요수량 신청 및 배정(주 단위) → 기관별 구매(조달청 나라장터)

-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에서 시행

** 현장 PCR 진단검사실 원거리 학교의 검체 채취·수거 등 지원

2 학사운영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

□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 이에, 학사운영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및 ④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 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지역·전국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정

○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한다.

○ 다만, 지렛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

※ 지역단위 지표(지역 확진자 대비 학생확진비율)는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

※ 유,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 유지

□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철저히 한다.

○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초·중등 교과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 등

○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

※ (2022.1월 기준 → 전면원격 수업 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60만 명→195만 명, 화상 15만 명→60만 명

○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 하도록 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 새 학기 방역·학사운영방안과 함께 학교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지침(가이드라인) 안내

《 학교 업무연속성계획(BCP) 주요내용 》

- 핵심업무 및 업무별 우선순위 정의, 비상조직체계 구축 및 자원 확보
- 코로나19관련 출근이 불가능한 교원의 근무 형태 및 원격수업 여부·방식
- 확진 교직원 발생 시 해당 학급·교과 수업 및 운영 방안
- 격리 학생 대체수업 제공 방안, 돌봄 인력 격리·확진 시 돌봄운영 방안

□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한다.

○ 먼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 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 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대학생 튜터링’ 등을 통한 학습보충, 교우관계 형성·신체활동 증진 촉진,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다문화·장애학생·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지원

【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

□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한다.

1.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 코로나19로부터 대학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하여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자가검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가실습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학의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
 -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 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주요내용 ▶

-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누어, 1단계 시 일부수업, 2단계 시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 비상상황 시, 대학이 운영하는 필수기능 및 출근필수 인력, 개방폐쇄 건물 등 사전 규정
- 집단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상황 대응시나리오 작성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 및 작성예시안 안내 예정(2월 초)

2. 수업 등의 학사 운영

-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 (예시)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수업

-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등)을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3. 비교과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 ※ 신입생 학교적응, 장기 비대면수업 학생을 위한 소통·지원 프로그램 등 대면 운영 권장
-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 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 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라고 설명하며,
 -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을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학교방역지침 주요 개정사항

【붙임2】 초·중등 정상등교 지속 추진 필요성

【붙임3】 대학 방역 관련 주요 지침 및 업무연속성 계획

【붙임4】 대학 대면활동 확대 필요성

【별첨1】 오미크론 대응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

【별첨2】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

담당 부서 <총괄>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3-6729)
		담당자	사무관 김수진 (044-203-6471)
<학교방역>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교육회복>	교육회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원숙 (044-203-7200)
		담당자	교육연구관 신일주 (044-203-7208)
<대학>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49)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6253)
		담당자	사무관 노현정 (044-203-6613)
<전문대학>	산학협력정책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상우 (044-203-6899)
		담당자	사무관 이은규 (044-203-6406)



붙임 1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사항(초·중등)

주요항목	현행	개정(신설·강화)												
코로나19 정보 확대	코로나19 기본 정보 제공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정보 제공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방역수칙 교육자료 등												
마스크 착용 기준 강화	보건용, 면마스크, 비말차단용 등 자율 착용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권고												
업무공백 예방	학교별 감염예방 방역관리 조직 구성·운영	다수 교직원 격리에 대비하여 「학교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제시 ※ 보건교사·급식종사자 격리 시 비상대책안, 코로나19 관리자·담당자 동선 분리 등												
자가진단 항목 보완	코로나19 임상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동거인 중 재택치료를 확인하는 문항 신설, 오미크론 정보 추가, 문항 가독성 개선												
등교·출근 기준 변경 ※ 방역당국 기준 반영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등교·출근 기준 설정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등교 기준 보완 ※ 동거가족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동거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 등교 가능하나 밀접 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자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지원	-	신속항원검사 도입·지원 ① 기숙사 입소생, 체육특기생 대상 주기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② 교육(지원)청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치하여 학생·교직원 검사 지원(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 비치) ※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10% 추가 비치 ③ 2월 등교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긴급 지원												
확진자 발생 대응체계 변경 ※ 방역당국 방역체계 변화 반영	방역당국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체계 전환에 맞추어 학교 자체조사 접촉자 후속조치 체계 마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검사방식</th> <th>검사장소</th> <th>등교제한</th> </tr> </thead> <tbody> <tr> <td>무증상자</td> <td>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td> <td>자가,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td> <td>각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td> </tr> <tr> <td>밀접 접촉자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td> <td>PCR 1회</td> <td>선별진료소</td> <td></td> </tr> </tbody> </table>	대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자가,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각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선별진료소	
대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자가,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각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선별진료소												
현장 PCR 진단검사	-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현장 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 도입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에서 시행)												
환기 강화	수업 전·후 수시 환기	창문 상시 개방(기상상황 고려)												
취약시설 보완	교실, 급식실, 기숙사 등 관리기준 제시	취약시설(급식실, 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table border="1"> <tbody> <tr> <td>급식실</td> <td>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개인별 또는 학급별 등)</td> </tr> <tr> <td>체육관</td> <td>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등</td> </tr> <tr> <td>양치실</td> <td>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td> </tr> </tbody> </table>	급식실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개인별 또는 학급별 등)	체육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양치실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						
급식실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개인별 또는 학급별 등)													
체육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양치실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													

2021 교육여론조사(KEDI)에서 만 19세~75세 응답자 4,000명은 **현 교육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 이슈로 “학교의 일상회복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32.7%), 취약계층 학습격차 해소 등 교육안전망 구축(19.3%)**이라고 응답

[학생 개인 측면]

- ① (학습결손) '20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21.6., '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학생들은 원격수업시 등교 때보다 수업 이해도와 집중도 저하 호소, 교사들도 원격수업의 학습격차 유발요인으로 학생의 피로도와 집중도 하락을 지적('21.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업 내용 이해도				집중도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등교	4.47	4.22	4.01	3.84	4.29	4.15	4.04	4.00
원격	3.89	4.03	3.75	3.75	3.60	3.58	3.54	3.46

- 코로나 이후 학습결손은 학습의 기회·과정·적용·성취 등 전 과정에서 나타나며, 학생과 교사의 학습결손 인식 역시 높은 수준
 - ※ 학습결손에 대해 학생 40~50%, 교사 60% 이상 인식('21.11., 경기도교육연구원)

- ② (심리·정서 등)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위축감 등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행복도 저하* 등 심리·정서 건강에 부정적 영향

* 학생행복도('19→'20, %) : [중3] 64.4 → 59.5, [고2] 64.7 → 61.2 ('20 학업성취도 평가)
 ※ '21.1분기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청소년상담원)
 ※ 학교는 학생·가족·지역사회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 건강 사이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 ('21.6., UNESCO/WHO)

- 등교 축소에 따른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고*, 사회성 저하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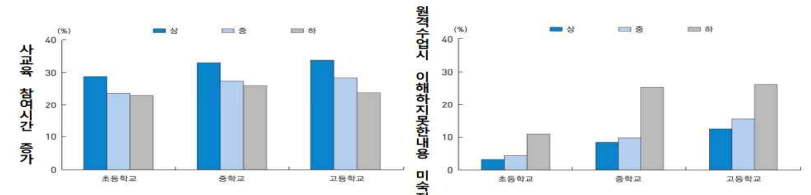
* 청소년 48.4%, '코로나로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 응답('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학부모 85.7%, 교사 87.6%가 학생의 사회성 함양 우려('20.11., 국가교육회의)

- 등교수업, 야외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비만율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건강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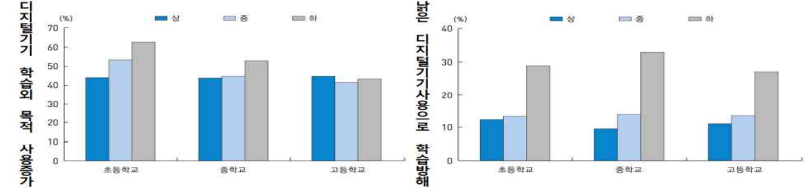
* 코로나19 전후 비만 아동의 비만지표 악화(BMI 26.7→27.7) ('21.4., 서울삼성병원)

[사회적 측면]

- ① (국가경쟁력) 학생의 학업 및 심리적 역량의 결손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 초래
 - ※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 국가 GDP의 1.5% 하락 초래('20. OECD)
 - 등교수업 축소로 학부모의 양육부담이 더욱 증가하며 특히 맞벌이 여성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
 - ※ 코로나19로 보육·교육기관이 문을 닫아 양육부담이 늘면서 여성고용이 남성보다 더 큰 타격('21.5., 한국은행)
- ② (계층격차)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학습 활동의 제한은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육 불평등을 노출·심화시키고, 취약하고 소외된 학습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21.3., UNESCO)
 - 가정경제의 상황이 '하' 일수록 사교육 참여는 낮고, 원격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넘어가고, 디지털 기기를 학습 외 상황에서 사용하며, 기기가 낡아 학습에 방해를 받는 비율이 높아짐('21.12., 통계청)



주: 1)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시간"의 항목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가정경제상황은 "나는 우리집이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잘산다(상), '보통이다(중), '못산다(하)'의 응답을 근거로 분류한 것임



주: 1) "학습 외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 시간"의 항목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 받은 적이 많다면"의 진술에 대해 등(그렇다)+매우(그렇다)한 학생의 비율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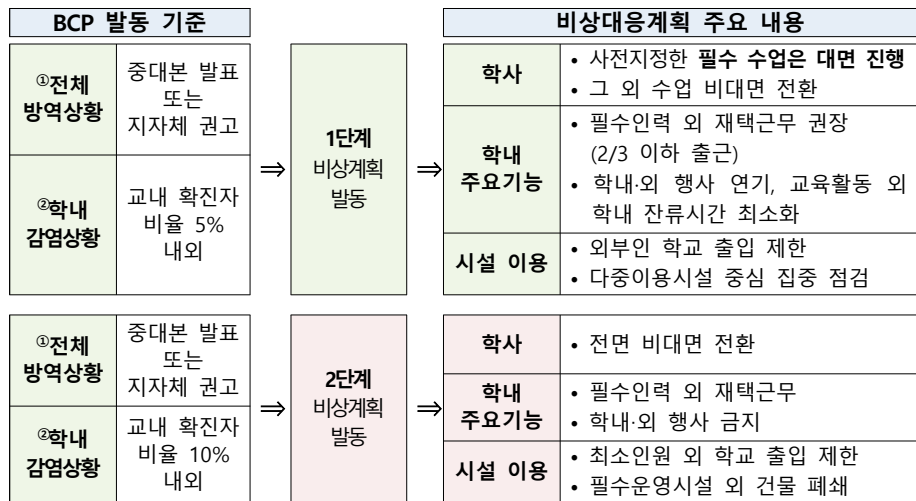
- OECD 조사 결과, 학교가 전면 폐쇄된 정도가 38개국 중 17위(초 59일(전체평균 54일), 고 54일(전체평균 67일))로서, 확진자 발생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 ⇒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학습결손 등 최소화 시급

붙임 3 대학 방역 관련 주요 지침 및 업무연속성 계획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주요 개정사항

단계	주요항목	현행(4판)	개정(5판, 배포 예정)																				
확산 방지	코로나19 정보 확대	코로나19 기본 정보 제공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정보 제공																				
	기숙사 입소 선제검사	기숙사 입소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기숙사 입소 시 2일 이내 선별진료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협의																				
	자가검사 활성화	-	대학 별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여 기숙사, 실기·실험·실습실 등에 우선 배치																				
대면 수업	실험·실습실 거리두기 기준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방역 관리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좌석 있는 강의실</td> <td>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td> </tr> <tr> <td>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등)</td> <td>4㎡ 당 1명</td> </tr> <tr> <td>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관악기 연주 등)</td> <td>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td> </tr> <tr> <td>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td> <td>4㎡ 당 1명</td> </tr> </tbody> </table>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등)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관악기 연주 등)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	4㎡ 당 1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방역 관리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좌석 있는 강의실</td> <td>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td> </tr> <tr> <td>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등)</td> <td>4㎡ 당 1명</td> </tr> <tr> <td>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관악기 연주 등)</td> <td>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td> </tr> <tr> <td>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td> <td>2㎡ 당 1명 ※ 예제는 실기수업은 등 기준 미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등)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관악기 연주 등)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	2㎡ 당 1명 ※ 예제는 실기수업은 등 기준 미적용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등)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관악기 연주 등)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	4㎡ 당 1명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등)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관악기 연주 등)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	2㎡ 당 1명 ※ 예제는 실기수업은 등 기준 미적용																						

□ 대학 별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주요 내용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및 작성예시안 안내 예정

붙임 4 대학 대면활동 확대 필요성

- (교육결손 회복) 대학생 학습 결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손 해소를 위해 대면활동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
 - *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대면 활동 확대를 희망"(대학 현장의견 '22.1.)
 - 학습자에 대한 밀착적 학습지원에 한계가 있어 학습결손 누적 경향
- (사회적 고립 해소) 교수-학생, 학생 상호 간 교류 축소로 인한 정서·사회적 고립* 및 학교 공동체 문화 위축**도 심화
 - *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감 경험 대학생 30.8%, 우울감 경험 대학생 33.2%(대교협, '21.12.)
 - ** 대학·학과 소속감 : 1학년(2.75/5점)<4학년 이상(2.81)<대학원생(3.3) // 평균(2.84)
 - 전년 대비 첫 취업 소요기간 0.1개월 증가(10.1개월), 대졸자 평균 졸업 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개월) 등 대학생 고용시장 진입 지연*(통계청, '21.5.)
 - * 대학생 심리불안 원인 : 취업 경쟁불안 심화 33.5%, 경제적 어려움 18.8%(대교협, '21.12.)
- (상호소통 강화 필요) '20-2학기 대비 '21-1학기 비대면수업의 학생 만족도 (3.3→3.74/5점) 및 수업 효과도 인식(3.15→3.44/5점)은 개선되고 있으나,
 - 학생 다수가 원격수업 중 교수자-학생 간 상호작용(질의응답·토론·피드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면수업 등 소통 확대 필요
 - * 비대면수업에서 "교수 혹은 다른 수강생과의 소통 부족"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 (3.14/5점, 평균 2.73점)을 경험(학생 7,700명 설문, '21.下.)

« 참고 : 해외 대학 학사운영 사례 »

- [대면수업 기조 유지 또는 확대]**
- ▶ 독일 : 대학 시설 이용, 수업 참여 시 각종 증명서 확인 등을 요구하는 방역지침 강화 하에 대면수업 유지 기조(대면·온라인수업 관련 구체적인 지침 없음)
 - ▶ 영국 : 자가격리 학생·교직원 제외 전면 대면수업 원칙
 - ▶ 일본 : 철저한 방역수칙 시행을 전제로 "대면수업 등 학습자 본위의 교육"을 정부에서 권장
 - ▶ 싱가포르 : 50명이하 소규모수업 및 실험·실습·구직·인턴십 프로그램 대면(백신패스 적용)
 - ▶ 중국 : '20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 진행
- [비대면수업 확대]**
- ▶ 미국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美 30여 개 대학에서 봄 학기 개강을 미루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21.12., 뉴욕타임스 등)
 - ※ 26개주 70개 이상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봄학기 개강 확인('22.1., AP통신)